

행동으로 구별되는 진짜와 가짜

본문 : 요한일서 2장 1-14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¹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²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¹⁾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³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⁴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⁵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법이 됩니다.

⁶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⁷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 보았던 가르침입니다.

⁸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⁹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¹⁰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1) 和睦, reconciliation. 원어의 뜻은 '덮어 주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propitiation). 즉, 화목이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요 22:21). 이를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속죄 행위가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여 화목제가 드러졌다. 그러나 구약의 화목제는 매번 반복해서 드러야 하는 불안정한 제사였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고후 5:18-19)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를 지셨다(롬 3:25; 5:10-11; 요일 2:2; 4:10). 라이프성경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1072.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¹¹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¹²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¹³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¹⁴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거짓말쟁이의 가짜’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4. 우리는 이 땅에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어두움에 살다가 진리의 빛을 받으며 빛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5.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복음은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의 성도는 이미 악과 싸워 이겼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참 성도와 이단이라 불리는 가짜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